

일본의 전통수공예자료의 과학적 전시
 (日本の傳統手工藝資料의 科學的 展示)
 -4차 일본 문화재보존관리실태 연수기행을 마치고-
 (4次 日本 文化財保存管理實態 研修紀行을 마치고)

徐 允 錫
 (文化財管理局 行政事務官)

目 次

- | | |
|----------------|--------------|
| 一. 머리말 | 라. 京都文化博物館 |
| 二. 傳統手工藝資料의 展示 | 2. 現場 展示 |
| 1. 博物館 展示 | 가. 平城宮址發掘 展示 |
| 가. 國立歷史民俗博物館 | 나. 大阪城 展示 |
| 나. 東京國立博物館 | 三. 맺 음 말 |
| 다. 國立民族學博物館 | |

I. 머 리 말

문화재(文化財) 보존관리업무(保存管理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는 현직(現職) 관리요원(管理要員)들에게 외국(外國)의 문화재(文化財) 보존관리실태(保存管理實態)를 견학(見學) 연수(研修)하게 하므로써 관리능력(管理能力)을 배양(培養)하고자 실시(實施)하는 시찰단(視察團)의 일원으로 1992年 11月 20日부터 11月 29日까지 10일간(日間)의 일정(日程)으로 일본(日本)의 문화재(文化財) 현장(現場)을 돌아보았다. 시찰단(視察團)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12명(名))과 시(市)·도(道)·문화재관리요원 등(文化財管理要員等) 모두 42명(名)이었으며 특(特)히 일본어(日本語)에 능통(能通)할 뿐 아니라 일본(日本) 고고학계(考古學界)와 관련(關聯)이 깊은 김기웅(金基雄)(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박사(博士)의 해설(解說)을 곁들여 더욱 뜻있는 시행(施行)이 되었다. 시찰단(視察團)은 짧은 기간(期間)에 일본(日本)의 보다 많은 문화재(文化財) 현장(現場)을 돌아 보고자 도쿄(東京),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 등(大阪等) 4개지역(個地域)의 미술공예품 등(美術工藝品等)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의 보고(寶庫)라할 수 있는 박물관(博物館) 4개소(個所), 성곽 등(城郭等) 사적(史蹟) 주변경관(周邊景觀) 3개소(個所),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굴현장(發掘現場)과 보존처리 등(保存處理等) 전시현장(展示

現場) 2개소(個所), 사찰 등(寺刹等) 전통건조물(傳統建造物) 10개소등(個所等)을 돌아 보는 매우 바쁜 일정(日程)이었다.

우리는 흔히 일상(日常)의 생활권역(生活圈域)을 벗어나 다른 지방(地方)을 여행(旅行)하다 보면 현지(現地) 분위기(雰圍氣)를 익히고자 잠시 노력(勞力)한다. 하물며 비행기(飛行機)로 2시간(時間)만에 생활문화(生活文化)가 다른 일본(日本)에 도착(到着)하니 변화(變化)가 많았다. 서울 김포공항(金浦空港)을 떠날 때는 맑은 하늘이었으나 일본(日本) 나리다(成田)공항(空港)은 비가 오고있었으며 그밖에 언어(言語)의 장벽(障壁), 편의시설(便宜施設) 이용방법(利用方法)의 차이 등(差異等) 가벼운 긴장(緊張)으로 잠시 당혹(當惑)하였으나 “우랄알타이”의 같은 언어권(言語圈)이며 피부색(皮膚色)과 생활풍습 등(生活風習等)이 비슷하여 더듬거리던 말문이 열리면서 차차 안정(安定)을 되찾았다. 일본(日本)은 바야흐로 단풍(丹楓)이 붉게 물들고,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우리나라의 10월과 비슷한 계절(季節)에 접어 들고 있었다.

도착(到着) 즉시(即時) 인간(人間)의 정신(精神), 육체적(肉體的) 노동(勞動), 숙련(熟練)된 기능(技能)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전통수공예문화(傳統手工藝文化)의 전시현장(展示現場)을 돌아 보았다.

二. 전통수공예자료(傳統手工藝資料)의 전시(展示)

우리가 돌아본 일본(日本)의 여러 지역(地域)의 문화재(文化財) 전시현장(展示現場)들은 산업화(産業化)에 의한 균일(均一)한 제품(製品)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전통적(傳統的)인 수공예품(手工藝品)들이었으며 첨단(尖端) 과학기재(科學機材)들은 모두 전시(展示) 보조용(補助用)으로 훌륭히 활용(活用)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특정(特定)한 물건(物件)이나 학술적(學術的) 표본(標本)들을 별려놓고 일반(一般)에게 참고(參考)가 되게 하는 것이 전시(展示)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전시기법(展示技法)은 고도(高度)로 발달(發達)하여 역사적(歷史的) 유물(遺物)을 수집진열(蒐集陳列)하는데 그치지 않고 드넓은 역사유적(歷史遺蹟)까지도 훌륭히 보존(保存)하고 전시(展示)하도록 과학화(科學化)하여 학술연구(學術研究)와 함께 사회교육(社會教育)을 위한 기능(機能)을 훌륭히 수행(遂行)하고 있어 전시(展示)의 범위(範圍)를 더욱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東西古今)의 고고학(考古學) 자료(資料)와 미술품(美術品), 역사유물(歷史遺物) 등을 수집진열(蒐集陳列)한 것을 박물관(博物館) 전시(展示)라고 하고, 드넓은 사적지(史蹟地)의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으로 가치(價値)가 큰 대상(對象)들을 모형(模型)으로 복원(復元) 전시(展示)하고 있는 것과 함께 발굴현장(發掘現場)까지도 일반(一般)이 이해(理解)하기 쉽도록 정리(整理)하여 놓은 곳을 현장(現場) 전시(展示)라고 하여 구분(區分)하였다.

1. 박물관 전시(博物館 展示)

가. 국립역사민속박물관(國立歷史民俗博物館)

먼저 찾은 곳이 일본(日本)의 지바(千葉)현(縣) 사쿠라(左倉)시(市)에 있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國立歷史民俗博物館)이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1953년 일본민속학회(日本民俗學會), 일본인류학회(日本人類學會), 일본상민문화연구소(日本常民文化研究所) 등의 건

의(建議)로 1981년에 국립대학(國立大學) 공동이용기관(共同利用機關)으로 설치(設置)되어 39,000여평(餘坪)의 부지(敷地)에 연건평(延建坪) 10,400여평(餘坪)의 건물(建物)과 행정직(行政職) 50, 연구직(研究職) 52명(名) 등(等) 100여명(餘名)이 관리운영(管理運營)하고 있다. (表 1) 소장(所藏) 미술(美術) 공예유품(工藝遺品)은 국보(國寶) 5점(點),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 73점(點), 중요미술품(重要美術品) 28점(點) 등(等)을 포함(包含) 115,000여점(餘點)이 있다. 특(特)히 귀중(貴重)한 미술(美術) 공예(工藝) 유품(遺品)을 정밀(精密) 복제(複製)한 것과 사찰(寺刹)등 유명(有名)한 고건축물(古建築物)을 축소(縮小) 복원(復元)하거나 모형(模型)으로 제작(製作)하여 전시(展示)하는 등 전시(展示) 연출(演出)이 잘 되어 있다.

<표(表) 1>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구(國立歷史民俗博物館 機構)

관리부(管理部)

- 總務課 - 庶務, 人事, 共同利用 등 3係
- 會計課 - 總務, 經理, 用度, 管財 등 4係
- 施設課 - 工營, 設備 등 2係
- 資料課 - 登錄臺帳整理, 記錄, 圖書, 情報處理 등 4係

연구부(研究部)

- 情報資料部 (4個 部門)
- 歷史研究部 (6個 部門)
- 考古研究部 (6個 部門)
- 民俗研究部 (6個 部門)
- ※ 評議員 20名
- 運營協議會 21名

行政職 50名	事務官 33, 技官 17
教育職 52名	教授 20, 助教授 16, 助手 16
計 102名	

그리고 전시장(展示場)에는 공직(公職)에서 정년(停年) 퇴임(退任)하였음직한 나이 많은 제복(制服)의 안내원(案内員)이 곳곳에서 감시(監視) 및 안내(案内)를 담당(擔當)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쇄(印刷)된 설명문(說明文)을 1매(枚)씩 뽑아 가도록 마련된 기기(機器)를 요소(要素)에 비치(備置)하여 전시(展示) 관람(觀覽)에 편의제공(便宜提供)을 하여 관람자(觀覽者)의 이해(理解)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휴게공간(休憩空間)에는 비디오, 멀티비전 등 전자기기(電子機器)를 이용(利用)한 전시(展示) 보조시설(補助施設)이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第一 전시실(展示室)은 석기시대(石器時代)부터 헤이안(平安)시대(時代)(10세기(世紀))를, 第二 전시실(展示室)은 평안시대(平安時代)부터 대항해시대(大航海時代)(16세기(世紀))를, 제삼전시실(第三展示室)은 근세(近世)를, 제사전시실(第四展示室)은 「일본인(日本人)의 민속세계(民俗世界)」로 구분(區分) 전시(展示)하고 있

어 일본(日本)의 역사(歷史), 문화(文化), 생활사(生活史) 등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게 전시(展示)하였다. 상설종합전시(常設綜合展示)는 일본(日本)의 역사(歷史), 문화(文化)의 흐름을 현대(現代)의 입장(立場)에서 주요(主要) “테마”를 선정(選定)하고 생활사(生活史)에 중점(重點)을 두어 구성(構成)한 것으로 최초(最初) 일본열도(日本列島)의 지리적(地理的) 조건(條件)을 상징(象徵)하는 바다를 기조(基調)로 설정(設定)하고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에서는 매마침 「탄(彈), 쉼(吹), 타(打)」 - 일본(日本)의 악기(樂器)와 그 계보(系譜) - 라는 기획전시(企劃展示)가 92年 10月 10일부터 11月 29일까지 열리고 있어 아세아(亞細亞) 각국(各國)의 여러 가지 악기(樂器)들을 비교(比較) 관람(觀覽)할 수 있도록 전시(展示)하였다. 그 전시방법(展示方法)은 손으로 뜯는 악기(樂器)(현악기(絃樂器)), 나무채로 두드리는 악기(樂器)(타악기(打樂器)), 입으로 부는 악기(樂器)(관악기(管樂器)), 줄과 줄을 부비는 악기(樂器)(아쟁류(牙箏類)), 흔드는 악기(樂器)(방울) 등으로 구분(區分)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악기(樂器)들도 22점(點)이 전시(展示)되어 있어 때맞추어 운(運) 좋게 관람(觀覽)할 수 있었다.(표(表) 2)

<표(表)2>

彈 · 吹 · 打
- 日本의 樂器와 그 系譜 -

<亞細亞 各國의 樂器와 함께 展示된 韓國의 國樂器>

1. 손으로 튕기는 樂器(絃樂器)		3. 나무채로 두드리는 樂器(打樂器)	
○ 伽倻琴	國立音樂大學	○ 杖鼓	國立音樂大學
○ 玄琴	"	○ 小鼓	東京藝術大學
○ 牙箏	"	○ 龍鼓	"
○ 唐琵琶	"	○ 教坊鼓	太鼓館
○ 鄉琵琶	"	○ 북	"
		○ 農樂杖鼓	"
2. 입으로 부는 樂器(管樂器)		○ 小金(쟁과리)	國立音樂大學
○ 大笏	田邊秀雄	4. 흔드는 樂器	
○ 洞簫	直川禮緒	○ 銅鐸	複製品
○ 堯	田邊秀雄	○ "	"
○ 鄉피리	東京藝術大學	○ 馬鐸	"
○ 細피리	"	○ 방울	東京藝術大學
○ 太平簫	國立音樂大學		

소장처별(所藏處別) 악기현황(樂器現況)

1. 국립음악대학(國立音樂大學) 악기학(樂器學) 자료실(資料室)
 - 가야금(伽倻琴), 현금(玄琴), 아쟁(牙箏), 당비파(唐琵琶), 태평소(太平簫), 장고

(杖 鼓)

2. 동경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 음악학부(音樂學部) 소천문부(小泉文夫) 기념자료관(紀念資料 館)

○ 향(鄉)피리, 세(細)피리, 소고(小鼓), 용고(龍鼓), 소금(小金), 방울

3. 태 고 관(太 鼓 館) : 교방고(敎坊鼓), 북, 농악장고(農樂杖鼓)

4. 전변수웅(田邊秀雄) : 대금(大琴)·훈(堧)

5. 직천예서(直川禮緒) : 동소(洞簫)

6. 복제품(複製品)

○ 동탁(銅鐸) :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소장(所藏)(대전시(大田市) 괴정동(槐亭洞) 출토 (出土), BC 2-3세기(世紀))

○ 동탁(銅鐸) : 진마고고자료관(辰馬考古資料館) 소장(所藏)(입실리(入室里) 출토(出土), BC 2세기(世紀))

○ 마탁(馬鐸) : 진마고고자료관(辰馬考古資料館) 소장(所藏)(입실리(入室里) 출토(出土), BC 2세기(世紀))

나.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다음에 찾은 곳이 동경도(東京都) 태동구(台東區) 우에노(上野)공원내(公園內)에 있는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이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35,000여평(餘坪)의 부지(敷地)에 본관(本館), 표경관(表慶館), 동양관(東洋館), 법릉사보물관(法隆寺寶物館) 등의 전시관(展示館)과 별관(別館), 자료관(資料館) 수장고(收藏庫), 강당(講堂), 연못 등(等)이 조성(造成)되어 있어 공원내(公園內)의 희귀(稀貴) 수목(樹木)과 함께 까마귀, 비둘기 등 새들이 울어대는 경관(景觀)이 좋은 곳이다. 이날은 마침 흐리고 비를 간간이 뿌리는 날씨에 토요일(土曜日)이었으나 공원(公園)을 찾는 산책객(散策客)들로 붐볐고 나무위에 까마귀가 각 각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어 별(別)로 상쾌한 기분(氣分)은 되지 못하였다. 일본(日本)에서는 까마귀를 길조(吉鳥)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까치와 같이 대접하고 있다고 안내자(案内者)는 전(傳)한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일본(日本)에서 최초(最初)로 박람회(博覽會)가 열린 뒤 1872년에 문부성 박물관(博物館)으로 발족(發足)하였으나 현재(現在)는 문화청(文化廳) 시설(施設)의 한 기관(機關)으로 되어 140여명(餘名)의 행정직(行政職), 학예직(學藝職) 등 전문인력(專門人力)이 근무(勤務)하고 있다. (표(表) 3) 이 박물관(博物館)의 명칭(名稱)도 당초(當初) 문부성(文部省) 박물관(博物館)(1872년)이 제국박물관(帝國博物館)(1899년), 동경제실박물관(東京皇室博物館)(1900년),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1947년),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1952년) 등으로 여러번 변경(變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表 3>

東京 國立博物館 機構

總 務 部

- 管理課 - 庶務, 管理, 人事, 涉外, 警備 등 5係
- 會計課 - 總務, 經理, 用度, 管財 등 4係
- 施設課 - 庶務, 營繕, 設備 등 3係

學 藝 部

- 企劃課 - 庶務, 列品, 展示調整, 普及 등 4室
- 美術課 - 繪畫, 彫刻, 書刻, 建築 등 4室
- 工藝課 - 金工, 刀劍, 陶磁, 漆工, 染織 등 5室
- 考古課 - 先史, 原史, 有史 등 3室
- 東洋課 - 中國美術, 中國考古, 北東亞細亞, 印度, 南東亞細亞, 西亞細亞, 이집트 등 7室
- 法隆寺 寶物室

資 料 部

- 情報調査, 情報管理, 資料 第一, 資料 第二, 資料 第三 등 5研究室
- 研究指導, 寫眞 등 2室
- ※ 評 議 員 20名 以內
- 定 員 144名
- 客員研究員 若干

建 物	本 館	東 洋	表 慶	法 隆	資 料	北倉庫	別 館
地上層	2	3	2	2	3	2	1
地下層	2	1	-	-	2	1	2
너 비	22,416	12,531	2,049	1,697	6,434	3,242	4,002

(合計:52,371㎡)

① 본관(本館) 건물(建物)은 이태리(伊太利) 건축가(建築家)에 의해 설계(設計)되고 1882년에 개관(開館)되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손괴(損壞)되고 그 후(後) 수리보완(修理補完)하여 1938년에 새로 개관(開館)하였는데 일본(日本)에서는 동양풍(東洋風)을 강(強)하게 풍기는 「제관양식(帝冠樣式)」의 대표작(代表作)으로 알려져 있다. 1층(層)에는 조각(彫刻), 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 무구류(武具類), 도검(刀劍), 염직물(染織物), 도자기(陶磁器) 등이 2층(層)에는 회화(繪畫), 칠공예품(漆工藝品), 서적(書蹟)이 진열(陳列)되어 있어 항상(恒常) 일본(日本) 미술(美術)의 대요(大要)를 개관(概觀)할 수 있도록 전시(展示)되어 있다.(수장품(收藏品) 42,000여점(餘點)).

② 표경관(表慶館)은 일본(日本) 대정천황(大正天皇)이 황태자(皇太子)로 있을 때 성혼(成婚)을 기념(紀念)해서 계획(計劃)되고 건립(建立) 개관(開館)(1909년)하여 명치말기(明治末期) 양풍건축(洋風建築)을 대표(代表)하는 건물(建物)로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指定)되어 있다. 내부(內部)에는 일본(日本) 각지(各地)에서 출토(出土)된 선사(先史)에서 역사시대(歷史時代)에 이르는 고고유물(考古遺物)과 함께 “아이누족(族)” 자료(資料)들을 전시(展示)하고 있다.(수장품(收藏品) 29,000여점(餘點)).

③ 동양관(東洋館)은 일본(日本)을 제외(除外)한 한국(韓國), 중국(中國), 동남아세아(東南亞細亞), 서역(西域), 인도(印度), 서아세아(西亞細亞), “이집트” 등의 미술(美術), 공예(工藝), 고고유물(考古遺物)들을 전시(展示)할 목적(目的)으로 1968년에 개관(開館)

되었다. 이 3층(層) 건물(建物)의 구조(構造)는 1층(層)과 2층(層)사이를 반층(半層)씩 올라가면서 순차적(順次的)으로 관람(觀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地下)에는 특별전시실(特別展示室)과 식당(食堂)이 부속(附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關心)을 끄는 것은 3층(層)에 우리나라의 불교(佛敎) 미술품(美術品) 도자기(陶磁器) 등이 전시(展示)되어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이 유물(遺物)들이 어떤 경로(經路)를 통(通)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선인(先人)들의 뛰어난 솜씨를 외국(外國)에 와서 접(接)하니 한편 반갑고 한편 숙연하여 저 감회(感懷)가 깊었다. 이 동양관(東洋館)에는 이 밖에도 우리나라 청동기(靑銅器) 시대(時代)의 마제석검(磨製石劍),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초두(鏃頭), 금제이식(金製耳食), 금동제투조관모(金銅製透彫冠帽),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연수수각호(緣袖獸脚壺), 사천왕사(四川王寺) 출토(出土) 쌍조문호(雙鳥紋互), 보상화문와(寶相華紋瓦), 간도출토(間島出土) 고구려(高句麗) 이불좌상(二佛坐像) 비로차나불(毘盧遮那佛), 고려청자(高麗靑瓷) 상감포유수금문병(象嵌蒲柳水禽紋瓶), 두조당초문상(透彫唐草紋箱)과 국화문나전경상(菊花紋螺鈿經箱) 등(等) 많은 유물(遺物)이 수장(收藏)되어 있다고 한다.(수장품(收藏品) 17,000여점(餘點)).

④ 법릉사보물관(法隆寺寶物館)은 법릉사(法隆寺)가 황실(皇室)에 헌납(獻納)한 뒤 국유(國有)로 된 보물(寶物)들을 정리(整理)하여 1964년에 개관(開館)하였는데 금동불상(金銅佛像), 가면(假面), 회화(繪畫), 서적(書蹟), 불구(佛具), 악기(樂器), 문방구(文房具), 염직물(染織物)등이 전시(展示)되어 있다. 이 보물관(寶物館)에는 법릉사(法隆寺)에 전래(傳來)한 “아스까”(飛鳥)시대(時代)에서 “에도”(江戶)시대(時代)에 이르는 보물(寶物)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동(東)쪽의 정창원(正倉院)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매주(每週) 1회(回)에 한(限)하여 일반(一般)에게 공개(公開)하는데 보물(寶物)들의 보존(保存)을 위해 비가 오거나 일기(日氣)가 불순(不順)할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않는다고 한다.

⑤ 자료관(資料館)은 미술사(美術史) 연구(研究)에 관(關)한 여러 가지 정보자료(情報資料)들을 수집(蒐集), 보관(保管)하고 연구자(研究者)들에게 공개(公開)하는 시설(施設)로서 1984년에 개관(開館)하여 도서(圖書) 약(約) 20,000책(冊), 탁본(拓本)이나 지도(地圖)등 역사자료(歷史資料) 약(約) 3,000건(件), 사진원판(寫眞原版) 약(約) 19만매(萬枚) 등이 수장(收藏)되어 있어 이들 자료(資料)는 관람(觀覽)이나 복제(複製) 이용(利用)이 가능(可能)하도록 되어 있다.

⑥ 그 밖에 옥외(屋外) 전시(展示)로는 표경관(表慶館) 주변(周邊) 또는 후원(後苑) 등에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指定)된 흑문(黑門), 교창(校倉) 등의 건물(建物)이 이진(移建)되어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朝鮮時代) 묘제(墓製)에 사용(使用)되던 석인(石人)이나 석양(石羊) 등(等) 석물(石物)과 그 밖에 석관(石棺) 등이 전시(展示)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에는 국보(國寶) 85건(件),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 540건(件)을 포함(包含)해서 88,000여점(餘點)의 생생한 진품(眞品)을 유물자료(遺物資料)들이 수장(收藏)되어 있다.

때마침 동양관(東洋館)에서는 이 박물관(博物館) 창립(創立) 120주년(週年)을 기념(紀念)해서 「눈으로 보는 120年」 - 일본(日本)과 동양(東洋)의 미(美) - 라는 제하(題下)의 특별전시(特別展示)가 92年 10月 13日부터 11月 23日까지 열리고 있어 일본(日本)의 국보(國寶),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 중요미술품(重要美術品)을 비롯한 450여점(餘點)의

귀중(貴重)한 수장품(收藏品)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은 조선(朝鮮)의 마지막 황태자(皇太子)인 영왕(英王)과 영왕비(英王妃)(방자(方子))의 복식류(服飾類) 등(等) 227점(點)의 유물(遺物)을 지난해(1991年) 10월에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반환인수(返還引受)하여 온 곳이기도 하다.

다.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

대판부(大阪府) 취천시(吹田市) 천리만박공원내(千里萬博公園內)의 12,300여평(餘坪)의 부지(敷地)와 연건평(延建坪) 14,600여평(餘坪)의 현대식 건물내(建物內)에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이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1935년 일본민족학박물관(日本民族學博物館)으로 재단법인(財團法人)을 설립(設立)하고자 계획(計劃)되었으나 실현(實現)되지 못하고 1939년 일본민족학회(日本民族學會) 부속(附屬) 민족학박물관(民族學博物館)으로 개관(開館)하고 토지(土地), 유물(遺物)과 개인소장(個人所藏) 자료(資料) 20,000여점(餘點)을 기부(寄附)한바 있다. 그 후(後) 1966년 민족학(民族學), 인류학(人類學), 고고학(考古學), 민속학(民俗學) 분야(分野)가 모인 일본민족학협회(日本民族學協會)가 문부대신(文部大臣) 등 관계요로(要路)에 국립민족연구박물관설치(國立民族研究博物館設置)를 요망(要望)하고 1974년에 국립민족연구박물관설치(國立民族研究博物館)이 설치(設置)되어 1975년에 기공(起工), 2년여(年餘)의 건립기간(建立期間)을 거쳐 1977년에 준공(竣工), 개관(開館)하였고 120여명(餘名)의 행정직(行政職), 연구직(研究職) 등 전문인력(專門人力)이 근무(勤務)하고 있다.(표(表) 4)

이 박물관(博物館)은 민족학(民族學)에 관(關)한 조사(調査) 연구(研究)와 함께 자료(資料)의 수집(蒐集), 보관(保管), 전시공개(展示公開) 등 공동연구(共同研究)를 통(通)하여 얻어진 세계(世界) 제민족(諸民族)의 사회(社會)와 문화(文化)에 관(關)한 정보(情報)를 여러사람에게 제공(提供)하고 제민족(諸民族)에 관(關)한 인식(認識)과 이해(理解)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사(調査) 연구(研究)된 성과(成果)를 전시공개(展示公開)하는 연구박물관(研究博物館)이며 또한 전국(全國) 대학(大學) 연구자(研究者)들을 위한 공동연구기관(共同研究機關)의 역할(役割)도 함께 하고 있다.

<表 4>

國立 民族學 博物館 機構

管 理 部

- 庶務課 - 庶務, 人事, 普及 등 3係
- 研究協力課 - 共同利用, 事業, 國際協力 등 3係
- 會計課 - 會計, 監査, 經理, 用度 등 4係
- 施設課 - 建築, 設備 등 2係

研 究 部

- 1研究部 - 東亞細亞 1.2.3.4, 中央亞細亞, 北亞細亞, 中央·北亞細亞 ⑦
- 2研究部 - 東南亞細亞 1.2.3, 南亞細亞, 西亞細亞, 南·西亞細亞 ⑥

- 3研究部 - 유럽 1.2.3, 아프리카 1.2.3 ⑥
- 4研究部 - 美國 1.2.3, 오세아니아 1.2.3 ⑥
- 5研究部 - 民族藝術, 民族技術, 民族藝術·技術, 民族言語,
컴퓨터民族學, 言語컴퓨터民族學, 民族社會, 民族宗教⑧

情報管理施設

- 情報企劃 - 情報資料, 標本整理, 展示企劃, 展示製作 등 4係
- 情報서비스 - 情報서비스, 文獻圖書, 映像音響資料 등 3係
- 情報시스템 - 情報시스템, 映像音響技術 등 2係

- ※ 評議員 200名 以內
- 客員研究部 20名 以內
- 運營協議會 21名 以內
- 外國人客員研究部 3名
- 懇話會

行政職 54名 教育職 66名	事務官 30, 技官 24 館長 1, 教授 26, 助教授 21, 助手 18
計 120名	

이 박물관(博物館)의 민족학(民族學)에 대한 견해(見解)를 인용(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학(民族學)”은 세계(世界) 제민족(諸民族) 사회(社會)와 문화(文化)에 대해 비교(比較) 연구(研究)하는 학문(學問)으로 일본(日本)에서는 전전(戰前)에 연구(研究)가 시작(始作)되어 전후(戰後)에 성행(盛行)한 학문(學問)이다. “민족학(民族學)”이란 명칭(名稱)은 구라파(歐羅巴)에서 주(主)로 사용(使用)하고 있으나 미국(美國)에서는 문화인류학(文化人類學)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일본(日本)에서도 최근(最近) 그런 명칭(名稱)을 사용(使用)하는 것이 흔하여 졌다.

다른한편 “민족학(民族學)”이란 학문(學問)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日本)의 농촌(農村), 산간(山間)마을, 어촌(漁村)에 전(傳)하는 제반(諸般) 습관(習慣)을 연구(研究)하는 학문(學問)으로, 세계(世界) 제민족(諸民族)의 연구(研究)를 목표(目標)로 하는 민족학(民族學)과는 다르다. 그러나 제민족문화(諸民族文化)의 연구(研究)에는 당연(當然)하게 일본(日本) 문화(文化)의 연구(研究)도 포함(包含)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민족학(民族學)”은 각민족(各民族)의 실증적(實證的), 객관적(客觀的) 연구(研究)로서 세계(世界) 각지(各地)에서 행(行)한 실지(實地) 조사(調査)에 의해서 모아진 자료(資料)들이 중요(重要)한 소재(素材)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책상위에서 하는 문헌적(文獻的) 연구(研究)와는 다른것이 특색(特色)으로 되고 있다. 연구(研究)의 영역(領域)이 제민족(諸民族)의 역사(歷史), 의식주(衣食住), 세계관(世界觀), 가족(家族)과 사회(社會)의 구조(構造), 언어(言語), 종교(宗教), 심리(心理), 예술(藝術), 기술(技術) 등에 걸치고 있다. 세계(世界) 제민족간(諸民族間)의 교류(交流)에 이바지하자면 이리 저러한 습관(習慣)이나 사물(事物)의 사고(思考) 등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런 연구(研究)를 통(通)해서 비로소 참된 국제이해(國際理解)가 움 트게 되는데 민족학(民族學)이란 이런것들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오세아니아, 미주(美洲), 구라파(歐羅巴), 아프리카, 서아세아(西亞細亞), 동남아세아(東南亞細亞), 중앙(中央)·북아세아(北亞細亞), 동아세아(東亞細亞), 음악(音樂) 언어(言語) 등으로 나누어 약(約) 만여점(萬餘點)을 전시(展示)하고 있다. 수장고(收藏庫)에는 약(約) 20만여점(萬餘點)이 보관(保管)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집(蒐集) 유물(遺物)을 현지(現地) 기후(氣候)나 온도(溫度), 습도(濕度)에 알맞게 하는 것과 금속(金屬)의 부식방지(腐蝕防止), 필요(必要)한 곰팡이 등의 유지(維持) 보존(保存)하는 것 등이 큰 문제(問題)라고 한다. 화학약품(化學藥品)을 사용(使用)할 경우 일정기간(一定期間)이 지나야 비로서 서서히 반응(反應)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중(貴重)한 유물(遺物)이 손상(損傷)될지 모르므로 신중(慎重)을 기(期)하고 있다고 한다.

흥미(興味)있는 전시(展示)는 언어전시(言語展示)와 음악전시(音樂展示)이다. 언어전시(言語展示)는 한가지의 민담(民談)을 일본(日本) 남(南)쪽의 구주(九州)에서 부터 북(北)쪽의 북해도(北海道)에 이르는 여러 지역(地域)의 방언(方言)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例)를 들면 일본인(日本人)이면 누구나 잘 아는 일촌법사(一寸法師) (바늘 크기만한 법사(法師)애기)나 도태랑(桃太郎)(개천에 떠내려온 복숭아에서 어린 장수가 나온 애기)와 같은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中) 관람자(觀覽者)가 희망(希望)하는 민담(民談)을 골라 “스위치”를 누르면 전국(全國) 방언(方言)의 변화현상(變化現象)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육적(教育的) 효과(效果)가 크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음악전시(音樂展示)는 넓은 전시장(展示場)에 「제민족(諸民族)의 음악(音樂)」이라고 해서 세계(世界) 여러나라의 악기(樂器)들을 나라별(別)로 진열(陳列)하였는데 전시대(展示台) 앞으로 관람자(觀覽者)가 다가서면 전자감응(電子感應)에 의해 자동적(自動的)으로 그나라 민족음악(民族音樂)이 연주(演奏)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여러가지 모양의 민족악기(民族樂器)의 모습과 함께 음악(音樂)도 함께 관상(觀賞)할 수 있어 신선(新鮮)하고 흥미(興味)로웠다.

여기에는 「조선반도(朝鮮半島)의 악기(樂器)」라고 하여 한평(坪)남짓한 자그마한 전시대(展示台)에 특별(特別)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야금, 거문고, 양금(洋琴), 아쟁(牙箏), 대금(大琴), 단소(短所), 피리, 장고(杖鼓), 북 등 10여(餘)가지의 우리나라 악기(樂器)들이 전시(展示)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좋은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는 편경(編磬), 편종(編鐘), 운라(雲羅), 방향(方響), 자바라 대금(大金), 소금(小金), 해금(奚琴), 백(柏) 등 훌륭한 고급(高級) 악기(樂器)들이 많이 있으나 전시(展示)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으며 전시장(展示場) 주변(周邊)의 일본(日本)을 비롯한 동남아세아(東南亞細亞) 민족음악(民族音樂) 연주음(演奏音)이 너무 크게 들리는 반면(反面) 우리 나라 연주음(演奏音)이 낮아 가야금 산조(散調)인지 거문고 산조(散調)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박물관(博物館)에는 우리나라와 관련(關聯)해서 또 한곳에 특별(特別)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300여평방(餘平方)“미터”의 넓은 전시공간(展示空間)에 「조선반도(朝鮮半島)의 문화(文化)」라고 하여 425점(點)의 전통공예품(傳統工藝品) 등 전시자료(展示資料)와 사진(寫眞) 및 도판(圖版), 37매(枚)가 전시(展示)되었는데 “예능(藝能), 신앙(信仰), 제례(祭禮)”와 “의(衣)·식(食)·주(住)”로 구분(區分)하여 비교적(比較的) 다양(多樣)하게 소개(紹介) 하고 있다.

“예능(藝能)” 부분(部分)에는 우리나라 민속음악(民俗音樂)의 대표(代表)하고 할 수 있는 농악(農樂)의 여러가지 기물(器物)들, 예(例)를 들면 농기(農旗), 농악기(農樂器),

농악복장(農樂服裝) 등과 봉산(鳳山)달춤의 달과 복색(服色)들이 전시(展示)되었다. “신앙(信仰)” 부분(部分)에는 무속신앙(巫俗信仰)과 관련(關聯)한 칠성도(七星圖), 산신도(山神圖), 제석도(帝釋圖)등 무신도(巫神圖)와 무복(巫服), 무구(巫具) 등 기물(器物)들이 전시(展示)되었다. “제례(祭禮)”부분(部分)에는 제상(祭床)위에 여러가지 목제기(木祭器)가 진열(陳列)되어 있고 그밖에 향로(香爐), 향합(香盒), 향상(香床) 등이 전시(展示)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指摘)할 것은 농악(農樂)이 북조선(北朝鮮)것으로 소개(紹介)되어 있어 이 박물관측(博物館側) 안내요원(案内要員)에게 「우리나라의 농악(農樂)은 지역(地域)마다 특색(特色)이 있어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한데 여기에 전시(展示)된 것은 호남지방(湖南地方)의 농악복장(農樂服裝)이 아니냐」 하고 문의(問疑)하였드니 북조선(北朝鮮)에서 구(求)할 수가 없어 남한(南韓)의 어느 업자(業者)를 통(通)해 구입(購入)하여 온 것 같다고 귀뜸하였다. 그리고 상모나 부포를 달아 돌리는 농악모자(農樂帽子)(전립(戰笠))도 급조(急造)한 것이 아닌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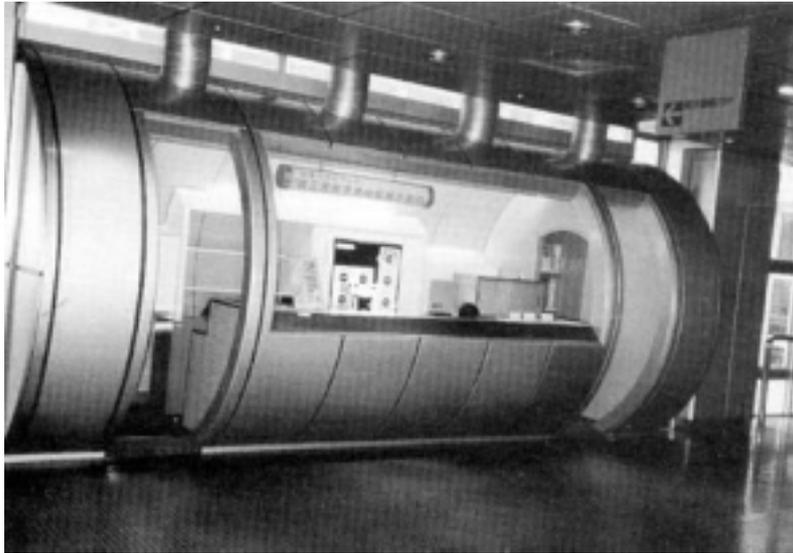
한편 의(衣)·식(食)·주(住) 등 우리민족(民族)의 생활문화(生活文化)를 소개(紹介)한 “의(衣)”생활소개(生活紹介)에는 혼례복(婚禮服)인 관복(官服), 사모(紗帽), 대예복(大禮服), 족두리등과 명절(名節)이나 잔치날에 입는 아이들 색동옷, 꽃버선, 꽃신, 꽃주머니, 금박저고리 등과 그 밖에 성인용(成人用) 男子마지, 저고리와 女子치마, 저고리가 전시(展示)되었다. “식(食)”생활부문(生活部門)에는 소반(小盤)위에 음식물(飲食物)이 나열(羅列)되어 있고 그 밖에 떡쌀, 차식판(茶食板), 과기류(果器類) 등과 대소(大小)항아리와 소주(燒酎)고리(대형(大型)) 등이 전시(展示)되었다. “주(住)” 생활부문(生活部門)에는 제주(濟州)의 민가(民家)를 축소모형(縮小模型)으로 제작전시(製作展示)하였고, 한편(便)에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사랑방(舍廊房) 세간인 보료, 퇴침, 등받이, 경상(經床), 필묵(筆墨), 연적(硯滴), 등잔(燈盞) 등과 다른 한편(便)에는 농사용기구(農事用器具)인 지게, 쟁기, 쟁이, 낫, 호미, 소쿠리, 키, 도리깨, 여물바가지 등과 직조용(織造用)배틀, 바디, 북 등이 전시(展示)되었다.

그런데 일반적(一般的)으로 혼사용(婚事用) 관복(官服)에는 흉배(胸背)가 없어야 하고 상류사회(上流社會) 부녀자(婦女子)들이나 입는 쪽빛 치마는 허름하게 마름되었고, 소반(小盤)위에 아무렇게나 음식물(飲食物)을 올려 놓아 엄격(嚴格)하였던 음식문화(飲食文化)가 바르게 소개(紹介)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주문화(飲酒文化)는 북(北)쪽으로 갈수록 주도(酒度)가 높은 소주(燒酎)를, 남(南)쪽은 탁주나 약주를 선호(選好)하여 곡창지대(穀倉地帶)에 가까운 충남(忠南)에는 소국주(素麴酒), 두견주(杜鵑酒) 등 이 유명(有名)한데 대형(大型)소주고리가 충남(忠南)것으로 소개(紹介)되어 있어 의문(疑問)스러웠다.

아무튼 한마디로 중류사회(中流社會)의 생활문화(生活文化)인지 기층문화(基層文化)를 소개(紹介)하고자 한 것인지가 분명(分明)치 않아 품위(品位)가 떨어졌다.

이 박물관(博物館)에는 다른 박물관(博物館)에서 볼 수 없는 “비디오텍”이라고 하는 영상전시장(映像展示場)이 특별(特別)하게 마련되어 있다. “비디오텍”이란 구라파(歐羅巴)의 영화전문상영관(映畫專門上映館)을 “씨네마텍”이라고 한데서 연유(緣由)했다고 한다. “비디오텍”은 세계제민족(世界諸民族)에 전승(傳承)된 음악(音樂), 언어(言語), 놀이, 의식(儀式) 등 전통적(傳統的)인 생활문화(生活文化)를 영상(映像)으로 촬영제작(攝影製作)한 “비디오”를 통(通)해 관람자(觀覽者)의 요구(要求)에 따라 영상정보(映像情報)를

자동송출(自動送出)하는 장치(裝置)이다. 이 “비디오텍”을 시청(視聽)하는 곳은 금속제(金屬製) 원통(圓筒)을 옆으로 누인것 같은 모양의 칸막이 방(房)을 나란히 배열(配列)하였는데 40실(室), 104석(席)(2인용(人用) 34실(室), 6인용(人用) 6실(室))이 준비 되어 있다.(사진(寫眞) 1)



사진(寫眞) 1. 비디오텍 : 정적(靜的)인 전시(展示)만으로 이해(理解)되지 않는 부분(部分)을 “비디오텍”을 통(通)해 시청하므로서 그 전시품(展示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며, 또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은 무엇 인지를 이해(理解)할 수 있어 자기학습장치(自己學習裝置)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비디오텍”을 설치(設置)한 이유(理由)는 박물관(博物館)에 전시(展示)된 표본자료(標本資料)들은 여러가지의 물건(物件)을 나열(羅列)하여 놓은 것에 불과(不過)하므로 움직임이 없는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진열(陳列)된 표본자료(標本資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使用)하며 그리고 그런것들을 사용(使用)하게 된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이해(理解)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問題)들을 해결(解決)하고자 이 박물관(博物館)이 “비디오텍”을 독자적(獨自的)으로 착상(着想)하고 연구개발(研究開發)하였다고 하는데 이 “비디오텍”은 일본(日本)의 유명(有名)한 전자회사(電子會社) 기술진(技術陣)의 적극적인 협력(協力)으로 제작(製作)하고 시설(施設)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비디오텍”은 관람자(觀覽者)가 스스로 보고자 원(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選擇)하여 자유(自由)롭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기(自己) 학습장치(學習裝置)라고도 말 할수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에는 400여개(餘個)의 영상자료(映像資料)(프로그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미주(美洲), 구주(歐州), 아세아(亞細亞),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13개(個) 지역별(地域別)로 나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것은 9번째 순서(順序)에 한국(韓國)의 결혼식(結婚式), 차례(茶禮), 의상(衣裳), 요리(料理), 종묘제(宗廟祭) 등 정선(精選)된 13가지의 “프

로그램”이 수장(收藏)되어 있다.(표(表) 5, 표(表) 6). 또한 이 “프로그램”은 수렵(狩獵), 어로(漁撈), 농경(農耕), 주거(住居) 등 19가지의 “테마”별(別)로도 구분(區分)하고 있어 찾아 보기 쉽도록 하였다.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소요(所要)되는 시간(時間)은 10분간(分間)이다.

<표(表) 5> “비디오텍”의 분류(分類)

1. 地域別 프로그램	427個		
① 오세아니아	39	⑦ 東亞細亞	39
② 美國	34	⑧ 中央 北亞細亞	24
③ 歐洲	34	⑨ 朝鮮半島	13
④ 아프리카	40	⑩ 中國地域	45
⑤ 亞細亞	12	⑪ 아이누	17
⑥ 南亞細亞	35	⑫ 日本	95
2. 테마別프로그램	359個		
① 狩獵과 採集	12	⑪ 兒童	14
② 漁撈	10	⑫ 婚禮式	11
③ 牧畜과 畜産	34	⑬ 葬禮	6
④ 農耕	21	⑭ 新年行事	9
⑤ 市場과 交易	9	⑮ 祝祭	29
⑥ 手任事와 職人	34	⑯ 舞와 演劇	28
⑦ 食物	31	⑰ 音樂	23
⑧ 飲料	11	⑱ 宗教	30
⑨ 衣裝과 裝身具	13	⑲ 言語	5
⑩ 住居	29		
3. 其他	29個		
① 特選프로그램	5		
② 新規프로그램	24		

<표(表) 6>

朝鮮半島의 비디오

管理番號	題 目	테마別 分類
1033	韓國의 旅藝人(男寺黨)	舞와 演劇
1083	韓國의 端午와 名節	祝祭
1085	韓國의 正月	新年行事
1086	韓國의 傳統料理	食物
1150	韓國의 通過儀禮	兒童
1151	韓國의 傳統的 衣裝	衣裝과 裝身具
1152	韓國의 샤머니즘	宗教
1153	韓國의 結婚式	結婚式
1154	韓國의 季節祭日	祝祭
1155	韓國의 葬禮	葬禮
1156	韓國의 國樂器	音樂
1184	處容舞 (大韓民國)	舞와 演劇
1185	宗廟祭 (大韓民國)	宗教
計	13個	(11個테마)

※일본민족학박물관(日本民族學博物館)이 소장활용(所藏活用)하는 한국(韓國)의 민속(民俗)

그밖에 이 박물관(博物館)에는 한국(韓國)의 정신문화연구원(精神文化研究員)과 마찬가지로 대학원(大學院) 제도(制度)가 있어 석사과정(碩士課程)을 마친 박사과정(博士課程)의 학생(學生)들이 있다. 이들은 타대학(他大學)에 재학중(在學中)이면서 특별연구학생(特別研究學生)으로 연구중(研究中)이며 모두 21개(個) 강좌(講座)가 있다고 한다. 연구방법(研究方法)은 개인연구(個人研究), 공동연구(共同研究), 특별연구(特別研究) 등이 있으며 개인연구(個人研究)는 각자(各自)의 희망(希望)이나 용도(用途)에 따라 연구(研究)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연구(共同研究)는 이 박물관(博物館)의 연구진(研究陣)뿐 아니라 타대학(他大學)에서 10여명(餘名)을 초빙하여 예(例)를 들면 「한국(韓國)에 관(關)한 연구조(研究組)」등을 구성(構成) 연구(研究)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연구(特別研究)는 대개(大概) 年 5회(回)의 “심포지엄”을 하는데 모두 문부성(文部省)의 예산지원(豫算支援)을 받아 10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어떤 특정회사(特定會社)가 설립(設立)한 재단(財團)의 요구(要求)와 지원(支援)으로 「민족학(民族學)」이나 「문명학(文明學)」 등의 연구(研究)를 의뢰(依賴)하고 있어 年 5-6회(回) 정도(程度), 특별(特別) “심포지엄”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박물관(博物館)의 년간(年間) 소요(所要) 예산(豫算)은 약(約) 35억(億)엔(한화(韓貨) 200억(億)원 상당(相當)) 정도(程度)이며 관람입장료(觀覽入場料)의 수입(收入)은 모두 국고(國庫) 들어가고 있다.

라. 경도문화박물관(京都文化博物館)

이 박물관(博物館)은 경도부(京都府) 경도시(經度市) 중경구(中京區) 삼조(三條) 고창통(高倉通)에 있으며 부지(敷地) 1,450여평(餘坪)에 연건평(延建坪) 4,790평(坪)의 별관

(別館)과 본관(本館) 등(等) 2개동(個棟)의 건물(建物)안에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경도(京都)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를 알기 쉽게 소개(紹介)하는 새로운 형태(形態)의 종합적(綜合的) 문화시설(文化施設)로서 1981年 경도부(京都府)의 문화간화회(文化懇話會)의 제언(提言)을 받아들여 “헤이안(平安)건도(建都) 1,200年(1994년에 해당(該當)) 기념사업(記念事業)의 일환(一還)으로 경도시(經度市)가 건립개관(建立開館)(1988年)하고 재단법인(財團法人) 경도문화재단(京都文化財團)이 관리(管理) 운영(運營)하고 있다.

경도문화재단(京都文化財團)은 경도(京都)가 안고 있는 문화전통(文化傳統)을 기반(基盤)으로 하여 새로운 경도문화(京都文化)의 창조(創造) 운동(運動)을 장려(獎勵) 육성(育成)하는 한편 이를 통(通)해 일본(日本) 문화(文化)의 중심(中心)이 되는 경도문화(京都文化)를 풍부(豊富)하게 하고 창조(創造)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재단법인(財團法人)이다. 이 재단(財團) 산하(傘下)에는 경도부(京都府) 경도문화박물관(京都文化博物館) 경도부립(京都府立) 문화예술회관(文化藝術會館) 경도부립(京都府立) 부민(府民)홀, 경도부립(京都府立) 당본인상미술관(堂本印象美術館)(1991年 수탁(受託)) 등을 두고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의 별관(別館)은 붉은 벽돌로 축조(築造)된 구(舊) 일본은행(日本銀行) 경도지점(京都支店)의 건물(建物)로서 근대(近代) 일본건축가(日本建築家)에 의해 설계(設計)되고 1906年 준공(竣工)하여 명치시대(明治時代)를 대표(代表)하는 양풍건축(洋風建築)이라고 하여 1969年 문화청(文化廳)에 의해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指定)되고 수리(修理) 복원(復元)하여 사용(使用)하고 있다. 지층(地層)에는 자료정리실(資料整理실) 1층(層)은 역사(歷史), 민속(民俗), 미술(美術), 공예(工藝) 등의 전시(展示), 2층(層)은 강의실(講義室)과 구(舊) 금고(金庫)자리는 수장고(收藏庫)와 객차점(喫茶店)으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본관(本館) 건물(建物)은 현대식(現代式) 콘크리트 7층(層) 건물(建物)로 지층(地層)은 자료열람실(資料閱覽室), 수장고(收藏庫), 1층(層)은 문화정보(文化情報)코너, 옛점포(店鋪), 2층(層)은 역사전시(歷史展示), 3층(層)은 미술(美術), 공예전시(工藝展示), 영상(映像)홀, 영상(映像)갤러리, 4층(層)은 특별전시실(特別展示室), 5, 6층(層)은 양풍(洋風)과 화풍(和風)의 전시회장(展示會場)이 있고, 7층(層)은 사무실(事務室)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2층(層) 역사전시실(歷史展示室)은 경도역사(京都歷史) 중심(中心)으로 생활상(生活相)이나 문화발전상(文化發展相)을 당시(當時)의 분위기(雰囲気)를 전달(傳達)하는데 주안점(主眼點)을 두어 전시(展示)하였는데 보물(寶物)과 똑같이 모조(模造)된 미술품(美術品)을 실물(實物)과 같은 질감(質感)을 느끼도록 새로운 조명기술(照明技術)을 이용(利用)하여 전시(展示)하고 있다. 3층(層) 미술(美術) 공예전시실(工藝展示室)은 교토(京都)에서 활약(活躍)하고 있는 작가(作家)들의 작품(作品)을 중심(中心)으로 상설전시(常設展示)하고 있다. 또한 교토(京都)는 일본(日本) 영화(映畫)의 발상지(發祥地)로서 경도부(京都府)는 “필립 라이브러리”사업(事業)으로 영상자료(映像資料)의 수집(蒐集) 보존(保存)을 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博物館)에서는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연구(研究) 진흥(振興)을 목적(目的)으로 활동(活動)하고 있다. 3층(層) 영상(映像)“홀”에서는 새로운 영상표현(映像表現)을 특집(特輯)하거나 “뉴미디어”의 “하이비전”영상(映像)들을 정기적(定期的)으로 상영(上映)하고 있다.

지층(地層) 자료열람실(資料閱覽室)에는 단행본(單行本) 4만점(滿點), 잡지(雜誌), 35,000점(點), “시나리오” 12,000점(點)과 “비디오”자료(資料) 1,500점(點)이 수장(收藏)되

어 있어 필요(必要)한 도서(圖書)나 영상자료(映像資料)를 항상(恒常)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박물관(博物館)은 다른 박물관(博物館)과는 다르게 영상관계자료(映像關係資料)를 많이 수장(收藏)하고 있어 이채(異彩)롭다.

4층(層) 특별전시실(特別展示室)에서는 교토(京都)의 역사(歷史), 문화(文化), 예술(藝術), 산업(產業) 등 여러 분야(分野)에 걸쳐 충실(忠實)한 내용(內容)의 기획전시(企劃展示)를 신문사(新聞社), 문화단체(文化團體) 등과 함께 공동개최(共同開催)하고 있다.

1층(層) 입구(入口)를 들어서면 넓은 “홀”에 문화정보(文化情報) 안내(案内) “코너”가 있어 교토(京都)에서 행사(行事)하는 여러 가지 전람회(展覽會), 음악회(音樂會), 연극(演劇), 영화(映畫), 예능(藝能), 강좌(講座) 등이 문화(文化) 관광정보(觀光情報) 영상(映像)(비디오), 전단(傳單), “포스타”, “팜플렛” 등으로 제공(提供)하고 있어 교토(京都) 산책정보(散策情報)로도 활용(活用)할 수 있다. 반대편(反對便)에는 “에도”(강호(江戶)) 시대말기(時代末期)의 거리풍경(風景)을 복원(復元)한 옛 점포(店鋪)인 주옥(酒屋), 탄옥(炭屋), 미옥(米屋) 등이 「경격자(京格子)」속에서 경요리(京料理), 우동 등 간단(簡單)한 식사(食事)와 녹차(綠茶) 등 음료(飲料), 그리고 「경물(京物)」이라 불리는 전통공예품(傳統工藝品) 등을 판매(販賣)하고 있다. 그 옆에는 그림 엽서(葉書), 목판화(木版畫), 색지(色紙), 도서(圖書)등이 진열(陳列)되어 있는 등 상점(商店)이 있어 기념품(紀念品)으로 살 수 있게 하였다.

2. 현장전시(現場展示)

가. 평성궁지발굴전시(平城宮址發掘展示)

나라시(奈良市), 좌기정(佐紀町)에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가 있으며 여기에는 평성궁지자료관(平城宮址資料館)과 유구전시관(遺構展示館)이 있다. 평성궁지(平城宮址)는 특별사적(特別史蹟)으로 지정(指定)되어 보존(保存)되고 있는데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 발굴조사(發掘調査)를 담당(擔當)하고 있고 현재(現在)도 계속(繼續) 추진중(推進中)이다.

평성궁지자료관(平城宮址資料館)에는 발굴조사(發掘調査)의 여러 단계(段階)를 나타낸 “디오라마”모형(模型)과 발굴(發掘)된 수(數)많은 유물(遺物)들, 그리고 조집전(朝集殿), 좌백문(佐伯門)의 복원(復元) 모형(模型) 등 현재(現在)까지의 조사(調査) 성과(成果)를 알기쉽게 전시(展示)하고 있다.

유구전시관(遺構展示館)에는 발굴(發掘)을 끝낸 유적(遺蹟)을 원래(元來)의 모습대로 보존(保存) 전시(展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위치(位置)에 실물대(實物大)로 복원(復元)된 기단(基壇)과 문(門) 등이 있어 유적(遺蹟)의 크기를 실감(實感)하게 된다.

평성경(平城京)은 “아스카”(飛鳥)에서 가까운 거리인 “이즈하라”(藤原)에서 나라분지(奈良盆地)의 북부(北部)인 이곳으로 도시(都市)가 약(約) 1,300년전(年前)에 옮겨졌다. 평성경(平城京)의 남(南)쪽 정면(正面)에는 나성문(羅城門)이 있으며 거기에서 폭(幅) 70“미터”의朱雀대로(朱雀大路)가 똑바로 북(北)을 향(向)해 뚫려 있고 서(西)쪽은 우경(右京), 동(東)쪽은 좌경(左京)이라 불리는 민가(民家), 사원(寺院), 시장(市場)이 있던 것으로 짐작되며 당시(當時)의 인구(人口)는 약(約) 10만명(萬名)으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평성경(平城京)의 중심(中心)에는 궁전(宮殿)과 역소(役所)(관아건물(官衙建物))가 있으며 그 중앙(中央)에 여러 의식(儀式)들을 행(行)한 큰 건물(建物)인 태극전(太極殿),

조당원(朝黨院)과 광장(廣場)이 있고 그 뒤에 천황(天皇)의 거문(居門)인 내리(內裏)가 있다. 그리고 평성경(平城京)의 동남(東南)쪽에는 연못이 딸린 궁전(宮殿)이 있고 북측(北側)에는 송림원(松林苑)이란 넓은 정원(庭園)이 있어 자연(自然)을 불러들인 전체(全體)의 모습은 정연(整然)한 가운데 변화(變化)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都市)는 옮겨 갔고 시대(時代)는 흘러 그 흔적은 모두 땅속에 묻혀 버렸다.

8세기경(世紀頃) 나라시대(奈良時代)의 흥성(興盛)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이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는 일본(日本) 선각자(先覺者)들의 꾸준한 보존운동(保存運動)을 벌여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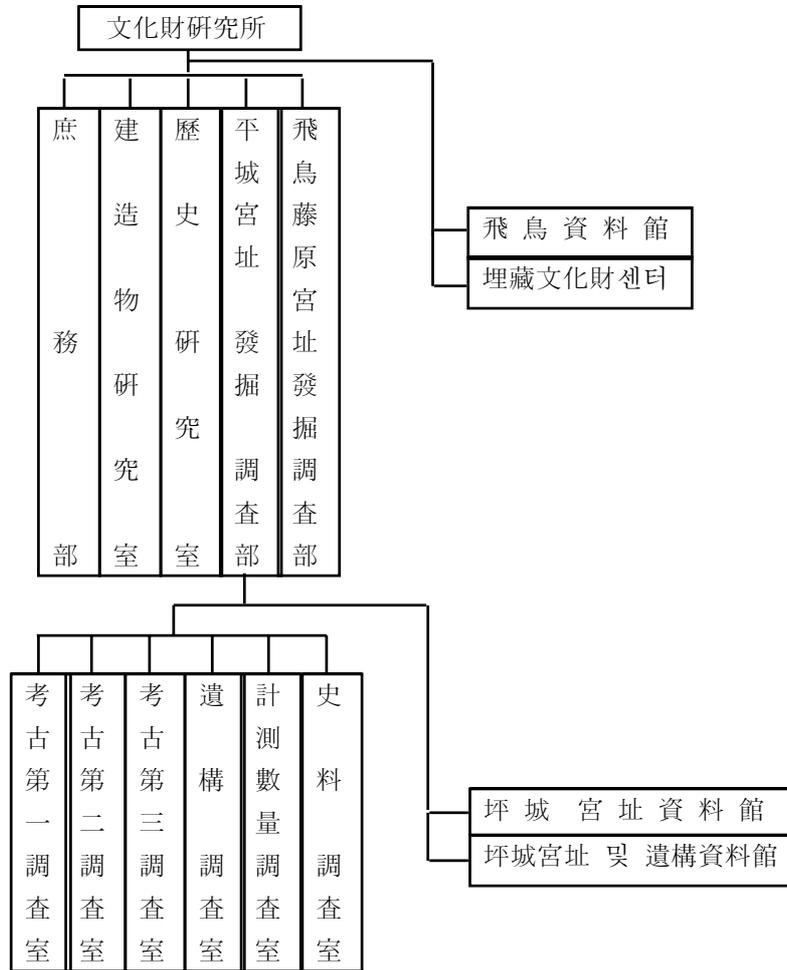
강호시대(江戶時代)(1603年~1867年) 말(末)에 북포정정(北浦定政)은 「평성내리지평할지도(平城內裏趾坪割之圖)」를 남겼으며 뒤이어 건축학자(建築學者) 관야(關野) 정(貞)은 「평성궁경급(平城宮京及) 대내리고(大內裏考)」를 발표(發表)(1907年)하고, 이어 역사학자(歷史學者) 희전정(喜田貞) 등은 「동방도성(東方都城)의 연구(研究)」(1911年)와 「제도(帝都)」에(1905年)을 발표(發表)한데 이어 책전가십랑(柵田嘉十郎), 유구육사랑(遺構六四郎) 등에 의한 문화재(文化財) 보존운동(保存運動)이 민간(民間)에서 부터 일어나 꾸준히 역사유적(歷史遺蹟)의 복원(復元)을 주장(主張)하여 왔다고 한다. 드디어 국가(國家)는 1922년에 대극전(大極殿) 조당원(朝黨院) 등을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하고 1928년에 민간(民間)에 의해 동부(東部) 일부분(一部分)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있었으나 그 규모(規模)는 크지 못하였다고 하며 국가(國家)에 의해 최초로(最初)로 발굴(發掘)이 시도(試圖)된 것은 1955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문화재(日本文化財) 보호위원회(保護委員會)는 문화재(文化財)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研究), 자료(資料)의 작성(作成) 및 보급(普及) 등을 목적(目的)으로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를 발족(發足)(1952年)시키고 또한 일본(日本) 길전수상(吉田首相)이 지방시찰중(地方視察中) 문화유적(文化遺蹟)의 보존(保存) 공개(公開)로 미술학교(美術學校), 미술연구소(美術研究所)의 설치(設置)를 구상(構想)하는 등이 계기(契機)가 되어 1963년에 평성궁지발굴조사부(平城宮址發掘調査部)를 신설(新設)하는 등 보존(保存) 운동(運動)이 더욱 확산(擴散)되어 갔다. 1963년에 100여만평(餘萬坪)에 이르는 평성궁지(平城宮址) 전역(全域)을 사적(史蹟)으로 확대(擴大) 지정(指定)하고 일부(一部) 민간(民間)에 있는 토지(土地)를 매입(買入)하였으며 1965년에는 특별사적(特別史蹟)으로 승격(昇格) 지정(指定)하여 궁지관통도로건설계획(宮址貫通道路建設計劃)을 우회시키는등 보존운동(保存運動)에 일대(一大) 박차(拍車)를 가(加)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아스카(飛鳥)·등원궁지조사부(藤原宮址調査部)를 신설(新設)하고 1974년에는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센타를 신설(新設)하는 등 기구(機構)를 확대(擴大)하였다. 오늘날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에는 3부(部)(서무부(庶務部), 평성궁지발굴조사부(平城宮址發掘調査部), 아스카(飛鳥)·등원궁지발굴조사부(藤原宮址調査部))와 2실(室)(건조물연구실(建造物研究室), 역사연구실(歷史研究室)) 등과 아스카자료관(飛鳥資料館),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센타 등이 있으며 특(特)히 평성궁지발굴조사부(平城宮址發掘調査部)에는 6개(個) 조사실(調査室)(목기(木器), 금속기(金屬器)를 담당(擔當)한 고고제일조사실(考古第一調査室), 토기(土器)를 담당(擔當)한 고고제이조사실(考古第二調査室), 개와(蓋瓦)를 담당(擔當)한 고고제삼조사실(考古第三調査室), 그밖에 유구조조사실(遺構調査室), 계측수량조사실(計測修量調査室), 사료조사실(史料調査室))과 평성궁지자료관(平城宮址資料館), 평성궁지(平城宮址) 및 유구전시관(遺構展示館)이 있다.(표(表) 7).

자료관(資料館)이나 전시관(展示館)의 전시(展示)는 실내(室內)에는 유물중심(遺物中心)으로 하고 옥외(屋外)에는 유구(遺構)의 보존(保存)과 건물(建物)을 복원(復元)하고 있으며 기단(基壇)을 정비(整備)하여 활용(活用)되도록 하고 있다. 발굴(發掘)에도 어려움이 많아 건물지(建物趾)에 남아 있는 것은 건물(建物)이 아닌 가둥자리(혈주(穴柱))의 흔적밖에 없어 발굴상태(發掘狀態)대로 놔두면 곧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일단 파묻고 난 뒤에 기단(基壇)을 잔디를 심거나 시멘트로 정리(整理)하고 초석(礎石)자리는 대리석(大理石)으로 미화(美化)하고 혈주(穴柱)에 상록수(常綠樹)(지름 30~45센치, 높이 150센치)를 심어 유적(遺蹟)과 같은 이리 저리한 모양관 방법(方法)으로 표현(表現)하거나 전시(展示)하고 있으며(사진(寫眞) 2) 지금까지 알게된 평성경(平城京)의 모습을 바르고 정확(正確)하게 하는 것을 제일목표(第一目標)로 하고 전시(展示)하고 있다. 발굴현장(發掘現場)은 몇가지를 예시(例示)한데 불과(不過)하지만 장차(將次)에는 평성궁(平城宮)을 유적박물관(遺蹟博物館)이나 공원화(公園化)해서 넓게 구석구석까지 활용(活用)이 되도록 정비(整備)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이는 100년계획(計劃)으로 추진중(推進中)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평성궁지(平城宮址)을 도처(到處)에서 견학(見學)하고자 찾아드는 이유(理由)는 많은 사람의 열의(熱意)와 노력(努力)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보존운동(保存運動)을 일으키고 지금도 이어지는 여러사람의 노력(勞力)과 우수한 연구성과(研究成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日本)의 문화재(文化財) 보존현장(保存現場)은 먼저 민간(民間)에 의해 운동(運動)이 일어나고 많은 예산(豫算)과 인력(人力)이 소요(所要)되는 발굴(發掘), 고증(考證) 및 사회교육화(社會教育化)하는 문제(問題)는 서서히 국가(國家)로 옮겨가고 있었다.

<表 7>

奈良 國立 文化財研究所 機構表





寫眞 2

寫眞 2. 유구전시(遺構展示):

발굴작업(發掘作業)에서 드러난 기둥자리(혈주(穴柱)) 높이 150, 지름 30~45센치의 상록수(常綠樹)를 심어 전시(展示)하므로서 교육적(教育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나. 대판성전시(大阪城展示)

대판성(大阪城)은 대판시(大阪市) 중앙구(中央區)에 있으며 특별사적(特別史蹟)으로 지정(指定)된 면적(面積)이 약(約) 22만평(萬坪)이고 주변(周邊)을 포함(包含)한 대판성공원(大阪城公園)의 전역(全域)은 약(約) 32만평(萬坪)이나 되는 규모(規模)가 큰 사적공원(史蹟公園)이다. 1953년에 성내(城內) 고건조물(古建造物) 13동(棟)을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指定)하고 대판성역(大阪城域)도 함께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하였다가 1955년에 다시 특별사적(特別史蹟)으로 승격(昇格) 지정(指定)하였으며 1959년에는 종합학술조사(綜合學術調査)를 실시(實施)한 바 있다. 그밖에도 박물관(博物館), “스포츠홀”, 야외음악당(野外音樂堂) 등이 근년(近年)에 건립(建立)되어 국제적(國際的) 사적공원(史蹟公園)으로 발전(發展)하였는데 1980년에는 대판성(大阪城) 축성(築城) 400주년(周年)을 맞이하여 축제를 벌였다고 한다.

대판성(大阪城)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傳)하고 있다.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연여(蓮如)라는 승려(僧侶)가 1496년에 지금의 대판성(大阪城) 부근에 작은 사방(舍房)을 영위(營爲)한 것이 석산(石山) 대본원사(大本願寺)라는 대사원(大寺院)으로 성장(成長)하였으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맞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위세(威勢)에 눌려 1580년(年)에 함락되고 만다. 그러나 “노부나가”(信長)도 본능사(本能寺)의 변란(變亂)으로 자멸(自滅)하고 그 후(後) 1583년에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오사카(大阪)를 장악하게 되는데 천하통일(天下統一)의 야망(野望)을 품고 석산본원사(石山本願寺)자리에 새로운 대규모(大規模)의 축성공사(築城工事)를 착수(着手)하여 호장(豪壯)한 성곽(城廓)을 완성(完成)한다. 그렇지만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죽은 뒤 17년만인 1615년, 오사카(大阪)의 여름싸움때 병화(兵火)로 천수각(天守閣)을 비롯한 건물(建物)들이 모두 소실(燒失)되고 만다. 1620년 대규모 수축공사(修築工事)를 시작하여

1629년에 완성(完成)하지만 1665년 대천수(大天守)가 다시 소실(燒失)되고 창건 당초의 흔적만 겨우 남는다. 그러다가 명치유신(明治維新) 때 많은 건물(建物)이 없어지고 그 후(後) 대관성지(大阪城址)은 육군용지(陸軍用地)로 점용(占用)된다. 1928년 대관시민(大阪市民)의 모금(募金)이 시작(始作)되고 대천수(大天守)의 그림과 기부금(寄附金)을 근거(根據)로 1931년 철골(鐵骨) 철조(鐵筋)콘크리트 천수각(天守閣)을 재건(再建)하여 많은 관광객(觀光客)이 찾게 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으로 성내(城内)나 주변(周邊) 전역(全域)이 대부분(大部分) 군관계시설(軍關係施設)이 있기 때문에 격렬(激烈)한 폭격(爆擊)을 당(當)하여 천수각(天守閣)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고건물(古建物)들을 잃는다. 그러다가 전후(戰後)에 재정비(再整備)하여 천수각(天守閣)을 시민공개(市民公開)하고 이 일대(一帶)를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하였으며 고건물(古建物)을 수리(修理) 복구(復舊)하고 박물관(博物館)을 개설(開設)하는 등 꾸준히 정비(整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수각(天守閣) 8층(層)의 전망대(展望台)는 지상(地上)에서의 높이가 50“미터”나 되어 여기에 올라가 주위사방(周圍四方)을 내려다 보면 드넓은 대관성공원(大阪城公園)이나 대관시가(大阪市街)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경관(景觀)이 훌륭하여 관광객(觀光客)이 끊이지 않는다. 8층(層)의 전망대(展望台)는 지상(地上)에서의 높이가 50“미터”나 되어 천수각의 “엘리베이터”는 오르는 전용(專用)이고 내려올때에는 계단(階段)을 통(通)해 걸어 내려오게 되어 있다. 7층(層)에는 풍신수길(豊臣秀吉)의 대관성(大阪城) 축성공사(築城工事) 이래(築城工事以來) 현재(現在)에 이르는 400여년간(餘年間)에 얽힌 내용이 실물(實物)과 함께 알기 쉽게 전시(展示)되어 있고, 6층(層)은 현재(現在) 사용(使用)하지 않고 있으며, 5층(層)에는 대관성(大阪城)을 쌓고 천하통일(天下統一)을 이룩한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생애를, 4층(層)에는 일본(日本) 도산시대(桃山時代)의 중심인물(中心人物)인 풍신수길(豊臣秀吉)의 관계자료(關係資料)를, 3층(層)에는 겐창시대(鎌倉時代)에서 막부시대말(幕府時代末)까지 200여년간(餘年間)에 걸친 무가(武家)의 각종(各種) 자료(資料)와 고대(古代) 무기(武具), 무기(武器) 등이 전시(展示)되어 있다. 또한 휴게시설(休憩施設)과 도록판매(圖錄販賣) “코너”가 있고 2층(層)은 이 성(城)에 관(關)한 여러가지 안내(案内)와 시청각설비(視聽覺設備), 회의실(會議室), 사무실(事務室), 학예실(學藝室), 직원실(職員室), 수장고(收藏庫) 등이 있으며 1층(層) 입구(入口)에는 관람객(觀覽客)으로 비좁은 공간(空間)에 안내(案内), 휴게(休憩) “코너”, 매점(賣店), “엘리베이터”, 공중전화(公衆電話), 화장실(化粧室) 등이 있다.

三. 맺 음 말

짧은 기간(其間)이지만 일본(日本)의 문화재(文化財) 관리현장(管理現場)을 돌아보면 서 느낀 것은 우선 전시자료(展示資料), 예산(豫算), 인력(人力) 등이 풍부(豐富)하고 시설규모(施設規模), 조직기구(組織機構) 등이 방대(龐大)하며 사전(事前) 연구(研究)가 치밀(緻密)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언어전시(言語展示), 음악전시(音樂展示), 영상전시(映像展示), 발굴현장전시(發掘現場展示) 등 새로운 전시기법(展示技法)을 도입(導入)하여 전시(展示)를 효율화(效率化)하였고 조명(照明), 음향(音響), “컴퓨터”, “비디오”, “멀티비전” 등 최신(最新) 첨단(尖端) 과학기재(科學器材)를 전시(展示) 보조장치

(補助裝置)로 적극(積極) 활용(活用)하는 등 과학화(科學化)에 주력(注力)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년(停年) 퇴임자(退任者) 등을 활용(活用)하므로서 고용증대(雇傭增大)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무(職務)에 충실(充實)한 것이 몸에 배여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근무태도(勤務態度)가 양호(良好)하게 보이는 안내원(案内員), 요소(要所) 요소(要所)에 전시(展示) 내용(內容)을 설명(說明)한 “씨트”(해설서(解說書))를 비치(備置)하므로서 추상적(抽象的)인 전시내용(展示內容)을 알기 쉽게 마련 하여 인상적(印象的)으로 느꼈다.

그리고 어느 전시장(展示場)이나 공통(共通)된 점(點)은 입구(入口)에는 그 전시장(展示場)의 특장(特長)을 안내(案内)하고 출구(出口)에는 반드시 전시도록(展示圖錄) 등 관련(關聯) 자료(資料)들을 정가(定價)대로 정확(正確)히 판매(販賣)하고 있었다.

또한 전시(展示) 관람(觀覽) 태도(態度)를 보아도 젊은 층(層)보다 중(中)·장년층(壯年層)이 기록(記錄)을 하는 등 열심히 알고 익히고자 노력하고 있어 전시(展示)하는 측(側)이나 전시(展示)를 감상(鑑賞)하는 측(側)이 모두 진지해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事實)을 기록(記錄) 정리(整理)하는 이유(理由)는 전통수공예품(傳統手工藝品)을 비롯한 모든 사물(事物)을 전시(展示)하기에 앞서 관련(關聯)한 더 많은 연구(研究)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